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 기반 대학 통일관광경영 수업 모듈 개발*

우은주
부경대학교 관광경영전공 부교수

박은경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조교수

김영국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Unification Tourism Management Class Module Developed by Community Based Learning(CBL)

Eun-Ju Woo^a, Eunkyung Park^b, Yeong-Gug Kim^c

^a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Hotel & Tourism, Daegu University, South Korea

^c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0, Revised 16 September 2020, Accepted 21 September 2020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unified tourism management clas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Gangwon-do. Community based learning(CBL) was applied to provide a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 of tourism resources the theoretical approaches and the actual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order to design a unified tourism management module, this study applied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the module.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then an online survey.

Finding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parts should include necessity of unification, inter-Korean tourism,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Korean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unification tourism management class should be designed as the unification tourism management theory to acquire the subject knowledge, the field trip to the border area for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assignment of the field study task to understand the community.

Keywords: Community Based Learning Unification Tourism, Local Community

JEL Classifications: C83, L26, M31

I. 서론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 및 남북관계 경직으로 남북관계는 잠정적으로 교착국면에 처해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올해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까

* 본 연구는 2019년도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a First Author, E-mail: eunjuwoo@pknu.ac.kr

^b Co-Author, E-mail: ekpark0621@naver.com

^c Corresponding Author, E-mail: yeongkim@kangwon.ac.kr

© 2020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지 남북교류는 이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정부는 대외적으로 평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평화의 시대를 위한 평화 및 통일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Han, Seung-Dae, 2019).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2018)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0대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10년간 지속적인 추이를 지켜볼 때 무관심 증대 경향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20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기보다는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보고했다(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따라서 몇몇 선행연구는 젊은 세대는 노년층과 비교하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으므로, 향후 통일한국의 주역인 현재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Lee, Mi-Kyung, 2014).

학문적으로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은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연구를 중심으로(e.g., Lee, Mi-Kyung, 2014; Im, Hyun-Mo, 2017)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교수법에 대한 제시(e.g., Lee Ji-Yeon, 2018)와 같은 유형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몇몇 현존하는 연구는 대학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주체를 대학이나 정부로 보고, 상대적으로 교육 주체인 대학생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Han, Seung-Dae, 2019). 그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은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제안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다수를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학의 전공계열 및 대학과 지역 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미흡한 것도 현 평화.통일교육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주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통일교육 수업 모듈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의 특성을 전공계열에 반영하여 평화.통일경영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대상을 DMZ 접근지역에 속해 있는 강원도를 연구대상으로 한정 짓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욱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공계열, 지역특성, 그리고 지역과 연계를 토대로 접근하고, 연구대상인 실향민, DMZ, 군사시설, 북한과의 체감이 높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위한 평화.통일관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전공별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에 기초해 관광계열 대학생을 위한 통일관광경영 수업 모듈 개발에 대한 과제를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통일관광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전공계열에 대한 접근과 지역연계에 대한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학문적 특성을 적용한 교수법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평화·통일의 유·무형 자원을 직접 경험하여 실제 이러한 자원을 평화·통일경영의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평화·통일경영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

1968년 정부가 대학에서 국민윤리 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수하도록 하게 한 이후 1988년까지 국책과목으로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정립하였다(Lee, Mi-Kyung, 2014).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80년대 말 탈냉전이라는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로 대학 통일교육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으로 책임이 전가되었고, 내용도 기존의 획일적인 이념교육에서 평화, 북한이해 등 다양

하게 변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미래 통일사회 대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동국대, 명지대, 관동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선문대, 조선대, 인제대 등 7개 대학에 ‘북한학과’가 신설 운영되었으나, 2016년 현재 북한학과 개설 대학 중 동국대만 축소해 유지될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폐과 혹은 타학과로 통합되어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관심과 지원 부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Lee Ji-Yeon, 2018; Im, Hyun-Mo, 2017).

선행연구는 대학생 대부분은 그들이 받아 온 통일교육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Lee Ji-Yeon, 2018; Im, Hyun-Mo, 2017). 예를 들어 Im, Hyun-Mo(2017)의 연구결과는 광주교육대학생의 통일교육에 대해 전체 학생의 92%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했고, 통일교육에 대해 58%가 ‘형식적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없지만(84.7%), 대체로 통일교육 강의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평가(62.9%)해 현재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Lee Ji-Yeon, 2018).

대학 통일교육에 관하여 현존하는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기반한 통일교육연구(Byeon, Jong-heon, 2012; Lee, Mi-Kyung, 2014), 통일교육을 보편적 확장을 위한 방향성 연구와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Kim, Jong Su, 2015)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언급한 유형의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저하와 대학생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의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무관심했던 대학생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yeon, Jong-heon, 2012; Lee, Mi-Kyung, 2014). 하지만 선행연구는 대학생에 관한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편성 및 교육의 방향성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형의 선행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현존하는 문헌은 대학의 통일교육은 평화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들은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학 통일교육의 현재 상황과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방향에 대한 구체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Byeon, Jong-heon, 2012; Lee, Mi-Kyung, 2014).

세 번째 유형은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Kim, Jong Su, 2015). 선행 문헌은 대학 내 통일교육은 소수의 특정학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특정 전공계열의 학생들만이 수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Kim, Jong Su(2015)의 연구는 통일교육을 편성하는 데 있어 통일의 정체성 확립을 언급하며, 대학의 통일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시대정신을 지각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지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의 통일 관련 수업 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교육과목에 필수 지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최근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일부 제시하지만,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선점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몇몇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학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이나 안과 방법이 대부분 한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im, Jong Su,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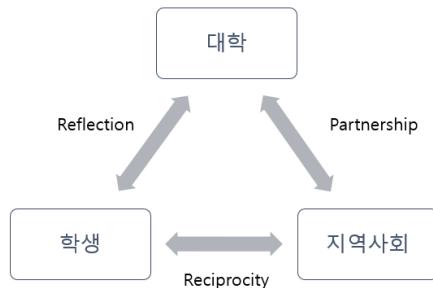
2.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은 강의시간에 다른 주제 및 이론의 내용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속에서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법이다(Carter et al., 2002; Melaville, Berg & Blank, 2006). 학교 수업에서 전달되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교육적으

로 최소화하기 위한 교안을 편성하고, 수업주제와 관련된 실제 환경을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Cheong, Myung-Hwa.Kim Kyeong-Ran(2013)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도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지적하며, 지역사회도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Cheong, Myung-Hwa.Kim Kyeong-Ran(2013)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은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들의 3주체들의 목표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학생들이 지역사회 틀 안에서 수업에서 습득한 이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교과 개설에 있어 지역의 기관과 협의하고, 실제 이론지식을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사회를 경험하면서 반성적 성찰과 지역과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지역과 학습 내용을 연결하게 하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는 학생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책임감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강조한다(Carter et al., 2002; Melaville et al., 2006).

<그림 1> 지역사회경험학습의 3주체 상호작용



출처: Hyung, Jung-Eun.Cheong, Myung-Hwa.Kim Kyeong-Ran 외(2011)

III. 연구방법

1. 통일관광경영 과목 개설을 위한 수업 모듈

지역사회경험학습의 핵심역량은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체험하면서 이론과 지역의 가치와 유용성을 실제로 체득하는 것을 표준으로 제시한다(Carter et al., 2002; Furco & Billig, 2002; Melaville et al., 2006). 따라서 선행연구는 지역사회경험학습 수업 모듈을 설계하는 데 있어 아래 몇 가지 고려사항을 권장한다. 특히 일반 강의수업과 달리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지역의 정체성을 교육적으로 강조하며, Melaville et al.(2006)은 지역사회경험학습 구성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하였다. 우선 지역사회경험학습에서 지역사회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습득한 내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에 효과적이며, 이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과 학습환경에 대한 일부 선택권을 부여하여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사적목표와 공적목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문제를 지각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 지적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Cheong, Myung-Hwa, Kim Kyeong-Ran, 2013; Furco & Billig, 2002). 그리고 지역사회경험학습 구성에 있어서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을 기존문헌은 강조한다.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수와 동료들의 모니터링은 물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과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미나를 수업 내에 포함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의 마지막 특성은 참여 주체인 학생이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체험하면서 지역사회에 스스로가 이바지할 수 있는 진로 설계에 대한 학습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지적한다(Hyung, Jung-Eun, Cheong, Myung-Hwa, Kim Kyeong-Ran, 2011; Carter et al., 2002; Reeb, 2006).

통일관광경영 수업 모듈을 구성하는 기초는 수업 주제를 탐색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주제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관광경영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지역학습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갖추는 것을 수업목표로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원도 내 북한 접경지역의 자원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원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습자 중심의 참여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현장체험 학습을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주요한 핵심역량은 학생들의 반성(reflection)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이슈와 지역의 기여방안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고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론적 기초와 현장학습 체험을 통한 효율적인 통일관광경영의 실제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제 및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 진정성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수업모듈 설계의 핵심이다(Reeb, 2006).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통일관광경영 수업 모듈 설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를 통해 세부적 수업내용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우선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수업과 수업방식에 대한 탐색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3명의 전문가와 경상계열에 대학생 10명과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대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샘플링은 눈덩이표본(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자의 지인 소개를 통해 참여 의사를 비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뷰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 일정을 협의했다. 심층 인터뷰는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참여 대학생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시 다루었으면 하는 수업내용, 수업을 위한 답사(현장체험)의 형태와 수업방식에 관한 내용이 반구조화 면접(semi 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료검토, 요약검토, 일반화 작업, 결과해석의 과정을 거쳐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Fossey et al., 2002). 따라서 녹취와 메모자료를 검토하여 인터뷰 데이터를 조직화(organization), 체계화(systemization), 범주화(categorization)하였고, 정성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설계부터 분석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거쳤고, 원자료를 분석 후 토론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심층인터뷰 이후, 통일관광경영 수업 구성을 위한 수요자 의견반영을 위해 온라인 서베이(online survey)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응답자의 의사표현이 보다 더 지향적이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문헌(Kim & Li, 2009)을 근거로 2020년 3월 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의 평균값을 통해 수업구성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설문내용에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포함해 설문지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한 설문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V. 통일관광경영 수업모듈 개발

1. 수업내용 구성을 위한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통일관광경영의 주요 수업내용을 크게 통일 필요성, 남북관광, 남북협력, 남북경제, 국제관계, 기타의 6개로 범주화하였다. 통일 필요성에는 통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필요성, 통일로 인한 남북한의 실제적 이익과 손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남북관광에는 남북한의 관광자원과 남북관계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남북협력에는 남북교류의 역사, 남북경제에 관련된 내용은 남북한의 경제자원과 통일이시 경제적 효과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국제관계에서는 남북통일을 통한 국제적 위상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그 밖에 북한의 문화나 분단국가에 사례연구에 대한 부분도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고 제시되었다.

Table 1. 심층인터뷰 결과: 주요수업내용

구분	주요 수업내용
통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근본적 의미 • 남북통일의 가치 •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와 개선방안 구상 • 남한 및 북한 분단역사의 이해 • 통일의 상징적 당위성 • 통일의 경제적 이득과 손해
남북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주요 관광명소 • 평화·통일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이념 차이로 발생한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사례연구 • 통일 후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남한 관광산업 수요변화 예측 • DMZ 지역의 관광가치 • 금강산 관광 현황 및 북한관광 예측 • 통일관광 스토리텔링
남북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의 역사 • 남한과 북한의 교류 및 협력 • 과거부터 이어진 통일정책 및 사업
남북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적 자원분포 및 자원가치 • 남북경제(산업구조, 개발형태) 비교 • 통일 시 양국의 경제적 효과 관련 이론수업 • 통일 이후 경제상황 예측 및 분석(관광산업을 중심으로) • 남한과 북한의 특화산업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경영으로 인해 달라질 것들 (정치, 경제, 문화, 국가의 위상 등) • 통일 후 변화될 대한민국의 모습 • 통일 전·후 한반도와 국제사회 관계변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와 개선방안 • 통일이 기업, 주민, 국가, 국제에 미치게 될 영향 • 북한 문화의 이해 • 분단국 통일 사례 분석(예: 독일, 베트남 등)

그 밖에 심층 인터뷰에서는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시 수업능률 향상을 위한 답사(현장체험)의 형태와 수업방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인터뷰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수업운영방식은 이론강의와 현장체험, 세미나, 토론형이 제시되었고, 현장학습으로는 전쟁사 현장이나 DMZ,

전쟁기념관과 더불어 탈북자들과의 만남에 관한 내용도 지적되었다. 또한, 수업과제로는 통일 후 북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팀 프로젝트 및 지역사회 답사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Table 2. 수업운영방식

수업운영방식	현장학습	수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강의 • 현장체험 • 북한강사 초청 • 세미나형 • 토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사 현장 답사 • DMZ 현장 답사 • 개성공단 답사 • 전쟁기념관 • 탈북 학생들과의 만남 • 새터민과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북한 관광개발 방향 및 관광특구 지정위치 분석 • 한반도 남북합동 관광개발 방법 조사 • 다크 투어리즘 혹은 DMZ 지역을 답사해 관광자원으로서 가능성 보고서 작성 • 북한 관광 코스 개발 • 대북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관광산업, 교통 인프라사업, 시설재정비사업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팀 활동 • 새터민 인터뷰

2. 참여자의 특성 및 통일 관심도

본 연구에 응답한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66명(31.4%)이었으며 여학생은 144명(68.8%)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48명(22.9%), 21-25세 이하가 147명(70.0%), 25-30세 이하가 12명(5.7%), 31세 이상이 3명(1.4%)로 확인되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52명(24.8%), 경상계열이 77명(36.7%), 자연과학계열이 19명(9.0%),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이 모두 11명(5.2%), 의학계열 20명(9.5%), 교육계열이 8명(3.8%)과 기타가 12명(5.7%)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뒤이어 국가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이 뒤이었으며, 탈북자(새터민)에 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Table 3. 통일에 대한 관심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소에 북한사회에 대해 관심이 있었음	3.27	.926
평소에 통일에 관해 관심이 있었음	3.34	.899
평소에 국가안보에 관해 관심이 있었음	3.44	.922
평소에 탈북자(새터민)에 관해 관심이 있었음	3.06	.951
평소에 대학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3.46	.953

3. 수업내용 및 효과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현장 답사를 위한 이론습득에 관한 수업내용 구성은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전공에 속한 전문가(교수)들의 검토를 통해 최종 20개로 제시하였다. 해당 수업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다음 <표 4>와 같이 제시하였고, 참여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내용은 통일 전·후 한반도와 국제사회 관계변화, 남북통일의 경제적 가치, 남북통일을 통한 한반도 공동관광개발 연구,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위험성, 평화.통일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나타났으며, 본질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수업내용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주요 통일관광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DMZ 지역 관련 수업(DMZ의 관광가치), 남북한의

주요 관광명소, 이념 차이로 발생한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사례연구 등이 주요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수업내용에 대한 답변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화·통일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961	.795	5
통일 후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	3.957	.824	6
남북통일을 통한 한반도 공동관광개발 연구	4.011	.843	3
이념차이로 발생한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사례연구	3.903	.951	10
남북경제(산업구조, 개발형태 등) 비교	3.812	.809	12
남북한의 주요 관광명소	3.945	.875	9
남북통일의 경제적 가치	4.061	.798	2
북한의 경제적 자원분포 및 자원가치	3.902	.876	11
통일 전·후 한반도와 국제사회 관계변화	4.412	.799	1
남북통합 프로그램 기획	3.693	.984	15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와 개선방안	3.772	.953	13
통일의 당위성과 위험성(경제적 이익과 손해)	3.984	.909	4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	3.951	.918	8
남한과 북한의 교류 및 협력(남북교류협력의 역사)	3.771	.865	14
분단국 통일 사례 분석(예, 독일, 베트남 등)	3.531	.964	20
과거부터 이어진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사업	3.612	.869	17
DMZ지역 관련 수업(DMZ의 관광가치)	3.956	.828	7
탈북민의 남한 정착에 관한 사례연구	3.671	.903	16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관계	3.602	.897	18
외국인이 바라보는 남북한 분단 상황 인식	3.578	.982	19

마지막으로 통일관광경영 수업이 개설되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질문에 많은 동의를 하였다. 그리고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에 필요성과 시의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통일관광경영 수업에 관한 효과성 인식

문항	평균	표준편차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이 필요	3.38	1.014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은 시의적으로 적절	3.34	1.029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임	3.83	.846
통일관광경영 수업 개설은 통일문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임	3.67	.896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를 연고로 한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관광경영 수업을 개설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경험 학습법을 적용하여, 전공계열의 이론적 접근과 지역사회를 실제 체험을 통해 평화·통일의 유·무형 자원을 직접 경험해 대학원들의 통일의식 및 통일관광경영을 고취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통일관광경영 수업 모듈 설계를 위해,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를 적용하여 수업의 방향성과 세부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강의와 수업방식에 대한 탐색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3명의 전문가와 경상계열의 대학생 10명과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관광경영 수업 구성을 위한 온라인 조사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통일 관심도는 통일관광경영수업에 대한 효과성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통일 교육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특히 통일 관련 수업의 효과성은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관광경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요 분야는 크게 통일 필요성, 남북관광, 남북협력, 남북경제, 국제관계로 구분되었고, 응답자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수업내용은 통일 전·후 한반도와 국제사회 관계변화, 남북통일의 경제적 가치, 남북통일을 통한 한반도 공동관광개발, 통일의 경제적 손익, 평화.통일관광, DMZ 지역 관련 이론수업,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 남북한의 주요 관광명소,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사례연구 등에 도출되었다. 무엇보다도 수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 대학생들은 통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통일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북한의 문화적 이해 및 경제적 상황,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관광경영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 남북관계의 역사, 남북관광자원과 경제적 자원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적·산업적·국제관계와 같은 기초지식에 대한 수업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초이론의 습득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에서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내용(meaningful content)’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과정으로 볼 수 있다(Carter et al., 2002; Melaville, Berg & Blank, 2006). 또한, 남북관계의 역사적 이해와 관광자원의 분포와 지역사회경험학습에서 ‘자원과의 관계(resources and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Cheong, Myung-Hwa.Kim Kyeong-Ran, 2013; Carter et al., 2002; Melaville, Berg & Blank, 2006).

지역사회경험학습에서 주요한 구성내용 중 하나는 지역사회 답사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수업에서 현장체험이나 DMZ 현장 답사 등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돕기 위한 현장체험에 대한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서 참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현장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6>과 같은 현장체험 코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행정 구역이자,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장 지역으로 곳곳에 전쟁유적 및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적.생태적.문화적.안보적 자원들이 강원도 접경지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에 대한 현장체험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강원도 접경지역 통일관광경영 관련 체험교육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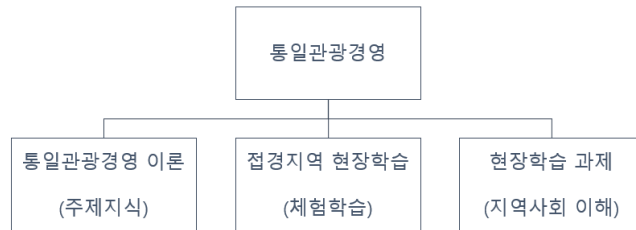
시군	코스명	주요내용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전망대 권역 코스 • DMZ 생태평화공원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공OP, 제2땅굴, 평화전망대 • 십자탑 전망대, 용양보
화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분단코스 • 백암산 로프웨이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발전소, 평화의 댐, 칠성전망대 • 백암산 로프웨이, 안동철교
양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관 권역 코스 • 두타연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과, 제4땅굴, 을지전망대 • 두타연 생태담방로
인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 DMZ 평화생명 코스 • 대안산 용늪 생태체험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38공원, DMZ평화생명동산 • 대안산 용늪 탐방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역사문화 탐방코스 • 통일전망대 권역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출처: Gangwon-do(2017)

현존하는 문헌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습 참여자의 ‘평가와 피드백(assessment and feedback)’을 통해 학생들은 성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과제를 통해 제시하는 방법은 학생이 사회의 자원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개연성을 교육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Hyung, Jung-Eun, Cheong, Myung-Hwa, Kim Kyeong-Ran, 2011; Carter et al., 2002; Reeb, 2006).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도 이론수업과 지역참여학습을 통해 다크 투어리즘 혹은 DMZ 지역을 답사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 보고서 작성, 북한 관광 코스 개발 등과 같은 과제를 수업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통일관광경영 수업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주제지식 습득을 위한 통일관광경영이론, 체험학습을 위한 접경지역 현장학습,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학습 과제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 지역사회경험학습 기반 통일관광경영 수업모듈 개요



본 연구의 학문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최근 대학은 남북 간 경제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미래설계와 진로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 북한과의 체감이 높은 강원도 기반의 대학들에서도 통일관광경영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대학의 통일교육이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이나 방향성, 혹은 교양수업에 기초한 교수법 제시 등과 같이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전공계열에 대한 접근과 지역연계에 대한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학문적 특성을 적용한 교수법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대학 현장의 전통적인 이론 및 강의식 수업에 대한 문제를 지역 현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인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통일관광경영 교육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MZ와 군사시설이 현존하는 강원도 지역에 기반한 대학교의 관광 및 경상계열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유·무형 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실제 이러한 자원을 통일관광경영의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오고 평화·통일경영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통일관광경영 교육 프로그램 제안은 북한과의 체감이 높은 강원도에 연고를 둔 대학생들에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평화·통일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민·관·학 평화·통일경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특성상 특정 지역을 연고로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접경지역이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경험학습에 대한 적용 범위도 다소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후행 연구는 연구범위를 확장해 전국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Byeon, Jong-Heon (2012), “The Task of Unification Education at Colleges”, *Unification Policy Studies*, 21(1), 157-186.
- Carter, M., E. Rivero, W. Cadge and S. Curan (2002), “Designing your Community-based Learning Project: Five Questions to Ask about your Pedagogical and Participatory goals”, *Teaching Sociology*, 30, 158-173.
- Cheong, Myung-Hwa and Kyeong-Ran Kim (2013), “A Theoretical Bases for the Applying Method of Community Based Learning to Community College”,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8(2), 99-119.
- Dunn, W. N. (1994),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e*, NJ: Prentice Hall.
- Fossey, E., C. Harvey, F. McDermott, and L. Davidson (2002),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Qualitative Researc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6), 717-732.
- Furco, A., and S. Billig (2002), *Service-learning: the Essence of the Pedagogy*, Lightning Source Inc.
- Gangwon-do (2017), *Gangwon-do Border Area Security Field Experience Course*, Gangwon-do.
- Han, Seung-Dae (2019), “Study of the State and Task of Government-supported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6), 1201-1215.
- Hyung, Jung-Eun, Myung-Hwa Cheong and Kyeong-Ran Kim (2011),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Learning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6(2), 175-195.
- Im, Hyun-Mo (2017), “A Research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of Gwang 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ocusing on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election of Leading University for Unification Education”,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 56, 155-188.
- Kim, Jong-Su (2015), “A study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Revitalization i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11(1), 103-130.
- Kim, Y. G., A. Eves and C. Scarles (2009), “Building a Model of Local Food Consumption on Trips and Holidays: A Grounded Theor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8: 423-431.
- Kim, Y. and K. Li (2009), “Customer Satisfaction with and Loyalty towards Online Travel Products: A Transaction Cost Economics Perspective”, *Tourism Economics*, 15(4), 825-846.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e Ji-Yeon (2018),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Flipped Learning at Unification Education in University”, *Unification Strategy*, 18(1), 255-286.
- Lee, Mi-Kyung (2014), “A Study of the Effective Ways of Improving the College Students' Positive Perceptions on Unific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70, 175-195.
- Melaville, A., A. C. Berg, and J. B. Blank (2006), *Community-Based Learning: Engaging Students for Success and Citizenship*, Washington DC: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
- Owens, T., and C. Wang (1996), “Community-based Learning: A Foundation for Meaningful Educational Reform”, *School Improvement Research Series*, Topic Synthesis 8.
- Reeb, R. N. (2006), “Community Action Research”,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32(1-2), 1-3.
-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Unification Consciousness Survey*, <http://tongil.snu.ac.kr/xe/sub710/73268>